

국교생 '공부싫다' 자살 관련 방송공사 '9시뉴스'

'개인의 정신병적 현상' 논평 부당

지난 9일 한국방송공사 <9시뉴스>에서 서울의 한 국민학생이 "공부가 싫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사건을 보도했다. 뉴스에서는 사건 보도와 더불어 어느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 말을 통해 "이런 자살사건의 원인을 사회나 제도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자살을 방조하고 조장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일종의 정신병적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보도에는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번 국교생의 자살이 사회제도나 구조에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되는 일종의 정신병적 현상이며, 자살한 어린이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와 논평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동안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거론되었던, 그리고 우리 국민이라면

내가 본 프로

누구나 인정하는 교육제도의 모순이 시정되었다는 것인가. 오히려 입시 위주와 경쟁 제일주의의 교육이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런 사건을 불러일으킨 원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현재 우리의 학교현장에서 어떠한 종류의 인성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국민학교 때부터 과외며 학원으로 내몰고 심지어 학문을 연구하고 사회병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대학에서도 취업이라는 날카로운 현실이 학생들을 도서관에 잡아두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기관의 현실은 누구의 책임인가. 남을 이

기지 않고는 출세할 수 없는 무한경쟁의 사회 분위기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사는 사람들보다 편법과 부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담당하게 영화를 누리

는 우리 사회의 책임은 아닌가. 한해에 1백50명이나 되는 어린 학생들의 죽음은 그저 개인적인 나약함과 한 가정의 문제에서 비롯된 우연한 사건으로 돌리기에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회가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면 다른 무엇에 책임을 지을 수 있겠는가.

물론 모든 사건의 책임을 사회로 돌리는 것 또한 피상적일 수 있지만 애써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자세도 공익방송의 올바른 보도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장대업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 아파트